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 구현 양상 - 8학년,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

김 익 조(홍제중학교 교사)

《 요 약 》

이 연구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이 8학년 교과서에 구현된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전 교육과정까지 국어 교과서는 국정 도서로 1종이었으나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국어 교과서는 검인정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 8학년 교과서는 15종이 검정을 통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이 교과서를 재구조화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7차'와 '2007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학습의 양을 줄인 교육과정이라고 했지만 '성취기준'에 사용된 용어나 개념으로 보아 포괄적이며, 내용 면에서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취기준별로 교과서에 구현된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교과서 편찬자들의 의도에 따라 단위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차이점이 많았다.

셋째, 교육과정이 구체화된 교과서 방식에 따라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교과서를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완전연계 교과서를 선택할 경우에는 '국어'와 '생활 국어'를 순차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분연계 교과서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비연계 교과서의 경우에는 두 교과서의 단위 구성이 전혀 별개의 책이라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넷째, 교과서 편찬 시 하나의 영역을 하나의 소단원이나 대단원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타 영역과 함께 묶을 수 있는 성취기준은 독립된 단원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영역의 성취기준과 함께 묶어서 단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교과서를 선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용을 지도할 때에도 선정한 교과서의 체제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교사 스스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내용이 교과서에 잘 구체화되어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

주제어 : 8학년 국어 교과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 8학년, 성취기준, 국정교과서, 검정 교과서

I. 들머리

교과서는 ‘추상적인 계획으로서의 국어과 교육과정을 교실 수업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자료(정혜승, 2004, p. 1)’라는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맞게 구현되어야 한다. 7차 교육과정 적용시기까지 국어과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¹⁾’에 이르러 검인정 교과서가 만들어졌고 2010학년도²⁾부터 각 학교에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실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즉,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육 공동체와 사회·정치·문화 공동체의 가치와 관점을 다양한 층위에서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지침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과정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본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해석한 전문가들 사이에도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구현 양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2007년에 개정·고시된 ‘개정’을 ‘7차’와 비교하고 8학년 교과서에 구현된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전 교육과정까지는 국어 교과서는 국정 도서로 1종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편찬된 국어 교과서는 검인정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 사용되는 8학년 교과서는 15종이 검정을 통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5종의 8학년 1, 2학기 『국어』, 『생활국어』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교사들이 교과서를 재구조화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2장에서 8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을 ‘7차’와 ‘개정’을 비교하여 살펴본 후 3장에서는 ‘개정’이 구현된 8학년 교과서의 양상을 살펴보고 4장에서 마무리한다.

II. 8학년 ‘문법’ 영역 ‘성취기준’

7차 교육과정 이전 시기까지 교사들이 교과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교과서는 절대적인 존재였

-
- 1) 이하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개정’이라 약칭하고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7차’로 약칭함.
 - 2) 중학교에서는 2010학년도부터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2010학년도에 23종의 7학년 교과서가, 2011학년도에는 15종의 8학년 교과서가, 2012학년도에는 12종의 9학년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으며 각 학교에서는 이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다. 즉,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보지 않고도 교과서 중심으로 교육을 하면 될 정도였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기에 접어들어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료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개정'에 들어서면서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바뀌었으므로 이제는 이 인식과 더불어 교육과정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장에서는 먼저 '개정'과 '7차'의 8학년 성취기준을 살펴본 후 성취기준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논의를 진행한다.

1. '개정'과 '7차'의 8학년 '성취기준' 비교

2007년에 개정 고시된 '개정'과 이전 '7차'에 나타난 8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a.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
 b. 여러 종류의 어휘를 비교하고 그 사용 양상을 설명한다.
 c.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d.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한다.
 e.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함을 이해한다.
- (2) a. 언어의 사회성을 안다.
 a'.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낱말을 임의의 다른 낱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한다.
 a''. 모임별로 임의의 낱말을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의사소통을 한다.
 b. 언어의 역사성을 안다.
 b'. 옛말과 현재 말을 비교하여 옛말과 다른 현재의 말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b''.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에서 옛말의 흔적을 찾는다.
 c. 국어의 음운 체계를 안다.
 c'. 국어의 모음과 자음을 각각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는다.
 c''. 국어의 음운 체계를 표로 나타낸다.
 d. 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d'. 낱말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알아보고, 낱말의 짜임에 따라 낱말의 종류를 나눈다.
 d''. 국어의 조어법에 따라 새로운 낱말을 만든다.
 e. 관용어의 개념을 안다.

- e'. 관용어의 예를 찾아 그 뜻을 말한다.
- e''. 관용어와 관용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기준을 알아본다.
- f. 발화의 기능을 안다.
- f'. 발화를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
- f''. 발화가 발화의 기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한다.
- g. 국어 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g'. 국어 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예를 구체적으로 든다.
- g''. 국어 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토의한다.

(1)은 '개정' 8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이고 (2)는 '7차' 8학년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 기준이다. '개정'에서는 (1)에서처럼 8학년에서 성취해야 할 기준으로 5개를 설정하였고 '7차'에서는 (2)에서처럼 7개를 설정하였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성취 기준을 7개에서 5개로 줄였다. 아울러 '7차'는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으로 성취기준을 다시 【기본】(a'-g')과 【심화】(a''-g'')로 나누고 있으나 '개정'에서는 이것을 없앴으므로 학습량은 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성취기준에 사용된 용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개정'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7차'에서 이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성취기준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2. '개정'의 성취기준과 관련된 '7차'의 성취기준

이 절에서는 '개정'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되는 '7차'의 성취기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성취기준1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a.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
- b.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안다.
- b'. 남한에서 쓰는 말과 북한에서 쓰는 말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말한다.
- b''.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하여 토의한다.

(3a)는 '개정'의 8학년 '문법' 영역의 첫 번째 성취기준이고 (3b-b'')는 '7차'의 9학년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기준이다. (3a)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반성적으로 점검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단어나 문장 차원에서 비교하는 활동보다는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 69).

(3b)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잘 아는 학습자가 국어의 동질성 회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하였는데 이 내용은 남북한 언어 차이의 현실 알기,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알기 등의 학습을 의도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1999, p. 81). 여기서는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그것은 또한 사회의 단절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나서, 남북 분단이 현실에서 점점 이질화되어 가는 언어의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3b')는 보충 활동으로 남북한 언어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말하게 함으로써 남한에서 쓰는 말과 북한에서 쓰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는 활동인 데 비하여, (3b'')는 심화 활동으로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게 함으로써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3)을 통해 단순한 어휘나 문장의 차이보다는 이질화 양상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통해 이질화의 양상을 깨닫게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보인다. 그런 점에서 '개정'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7차'의 심화 활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과서가 편찬되어야 바람직하다. 다음은 성취기준2를 살펴보기로 한다.

- (4) a. 여러 종류의 어휘를 비교하고 그 사용 양상을 설명한다.
- b.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을 안다.
- b'.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에 속하는 예를 각각 찾는다.
- b''.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특성을 설명한다.

(4a)는 '개정'의 8학년 '문법' 영역의 두 번째 성취기준이고 (4b-b'')는 '7차' 7학년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기준이다. 즉, '7차'에서는 7학년 교육과정에 있던 것이 '개정'에서는 8학년으로 설정되었다.

(4a)는 다양한 종류의 어휘를 사용하는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국어 어휘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현 국어 생활 문화 환경에서 단어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b)는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을 아는 학습자가 상황에 따라 어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선정하였다. 이 내용은 은어의 개념 알기, 전문어의 개념 알기, 속어의 개념 알기, 비어의 개념 알기, 유행어의 개념 알기,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상호 관계에 대해 알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다. (4)를 통해 보면 '7차'에서는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라고 표현했던 것을 '개정'에서는 '여러 종류의 어휘'로 표현하였다. 이 항목만 본다면 '7차'보다는 '개정'이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성취기준3을 살펴보기로 한다.

- (5) a.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 b. 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 b'. 낱말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알아보고, 낱말의 짜임에 따라 낱말의 종류를 나눈다.
- b''. 국어의 조어법에 따라 새로운 낱말을 만든다.

(5a)는 '개정'의 8학년 '문법' 영역의 세 번째 성취기준이고 (5b-b'')는 '7차'의 8학년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기준이다. (5)는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여 국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국어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여 단어의 짜임을 탐구함으로써 국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여 국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국어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7차'에서 '국어의 조어법'이라고 했으나 '개정'에서는 '국어 단어 형성법'이라고 명칭을 달리 한 것 이외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성취기준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 a.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한다.
- b. 문장의 구조로 말미암아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현상을 안다.
- b'. 중의적인 표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보고 중의 현상이 생긴 이유를 말한다.
- b''. 중의적인 표현이 의사소통에서 가지는 장단점에 대해 토의한다.

(6a)는 '개정'의 8학년 '문법' 영역의 네 번째 성취기준이고 (5b-b'')는 '7차'의 9학년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기준이다. '7차'에서는 9학년에 있던 것이 '개정'에서는 8학년의 성취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 성취 기준은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정확하고 효과적인 문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6b)에서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현상'으로 (6a)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b')나 (6b'')를 살펴보면 '중의적인 표현'에 한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6a)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개정'이 '7차'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성취기준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7) a.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함을 이해한다.
- b.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말한다.
- b'. 상황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글을 쓴다.
- b''.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7a)는 '개정'의 8학년 '문법' 영역의 다섯 번째 성취기준이고 (7b-b'') '7차' 10학년의 성취

기준이다. (7b)는 ‘말하기’, (7b’)는 ‘쓰기’, (7b’’)는 ‘국어지식’ 영역이다. (7a)에서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하므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모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은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함을 이해함으로써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정’의 성취기준은 ‘7차’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고 거의 유사한 경우도 있었다. ‘개정’에서는 ‘7차’에 비해 성취기준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포괄적인 용어로 성취기준을 기술하여 학습 내용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다음 장에서는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체화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Ⅲ. 8학년 교과서 구현 양상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개정’의 ‘문법’ 영역 성취기준이 8학년 『국어』, 『생활 국어』 교과서에서 구현된 양상을 살펴본다. 먼저 15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어』와 『생활 국어』의 연계성을 살펴본 후, 다섯 항목의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구현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1. 『국어』와 『생활 국어』의 연계성

이 절에서는 『국어』와 『생활 국어』 교과서의 연계³⁾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국어 교과를 지도하기 위해 7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가 두 권으로 나누어져 편찬되어왔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국어』와 『생활 국어』는 국정 교과서로 1종의 교과서가 편찬되었는데 『국어』는 ‘읽기, 문법’ 영역 위주로, 『생활 국어』는 ‘듣기, 말하기, 쓰기, 국어지식’ 영역의 기능 범주 내용이 많이 실려 있다.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이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만큼 ‘개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도 이 정신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국어』와 『생활 국어』 교과서의 목차와 내용이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느냐에 따라 “연계 교과서”와 “비연계 교과서”로 나누어 살펴본다.

3) ‘연계’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짐. 또는 그러한 관계(민중 국어사전)’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논문에서 ‘연계’란 『국어』와 『생활 국어』 교과서가 내용면에서 나타나는 순서성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어』교과서 1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생활 국어』 1단원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연계’된 교과서로 본다. 이 연계성은 교사가 ‘교수-학습’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가. 연계 교과서

“연계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 국어』 교과서에서 대단원 목차와 소단원 목차까지 동일하고 내용면에서도 『국어』와 『생활 국어』가 연관되어 전개된 ‘완전연계’ 교과서와 대단원 목차는 동일하지만 소단원의 목차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내용면에서 두 교과서가 전체적인 큰 흐름은 같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연계’ 교과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완전연계’ 교과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완전연계 교과서 목차

학기	국어	생활 국어
2-1	1. 색깔 있는 우리말 (2)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 4. 생활 속의 언어 (3) 전문어, 유행어, 은어 5. 시대 읽기, 상황 읽기 (2) 상황에 따라 이해하기	1. 색깔 있는 우리말 (2)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 4. 생활 속의 언어 (3) 전문어, 유행어, 은어 5. 시대 읽기, 상황 읽기 (2) 상황에 따라 이해하기
2-2	2. 생각 짜기, 단어 짜기 (3) 국어의 단어 형성법 3. 목적에 맞는 국어 생활 (3) 남북한의 말과 글	2. 생각 짜기, 단어 짜기 (3) 국어의 단어 형성법 3. 목적에 맞는 국어 생활 (3) 남북한의 말과 글

〈표 1〉은 오세영 등(2011)의 『국어』와 『생활 국어』 목차이다. 〈표 1〉에서 대단원 목차뿐만 아니라 소단원 목차까지 일치한다. 내용면에서는 『국어』 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이나 제재를 『생활 국어』 교과서에서 보충·심화하거나,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일선 학교에서 ‘완전연계’ 교과서를 선택한다면 『국어』와 『생활 국어』를 순차적으로 지도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표 1〉처럼 편찬된 교과서는 노미숙 등(2011)과 윤희원 등(2011)을 더 들 수 있다. 다음은 ‘부분연계’ 교과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2〉 부분연계 교과서 목차

학기	국어	생활 국어
2-1	2. 글의 특성과 짜임 (2) 남북한의 언어 차이	2. 글의 특성과 짜임 (2) 통일 시대의 국어
2-2	4. 알고 쓰는 우리말 (1) 단어의 짜임 (2) 우리말 바르게 사용하기	4. 알고 쓰는 우리말 (1) 새말 만들기 (2) 함께하는 말

〈표 2〉는 윤여탁 등(2011)의 목차이다. 『국어』와 『생활 국어』에서 대단원 목차는 ‘2. 글의 특성과 짜임’, ‘4. 알고 쓰는 우리말’로 동일하다. 2단원은 ‘문법’ 영역의 두 성취기준을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하였고 4단원은 ‘말하기’ 영역의 성취기준과 함께 단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 소단원은 ‘단어의 짜임’으로, 『생활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 소단원은 ‘새말 만들기’로 설정하여 약간의 차이를 두면서도 연계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다. 이렇게 대단원 제목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소단원 제목을 달리 설정하였지만 내용면에서 『국어』와 『생활 국어』를 연계시킨 교과서를 부분 연계 교과서로 볼 수 있는데 이남호 등(2011), 이용남 등(2011), 왕문용 등(2011), 김상욱 등(2011), 김종철 등(2011), 권영민 등(2011), 조동길 등(2011)을 들 수 있다. 15종의 교과서 중 이 유형에 속하는 교과서가 가장 많은데 이러한 유형의 교과서에 실린 머리말을 살펴보기로 한다.

(8) 『국어』 교과서에서 공부한 지식과 원리를 『생활 국어』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언어 상황에서 보충 심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과서 속에만 존재하는 국어 능력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어 능력의 신장을 지향 하였습니다.

(8)은 윤여탁 등(2011)의 머리말이다. 여기에 따르면 『국어』에서 지식과 원리를 먼저 공부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 국어』에서 다양한 언어 상황에서 보충·심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짜여야 한다. 그러나 이 교과서 구성의 실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이 글이 쓰인 상황 맥락을 정리해 보자(답화 상황: 비공식적 상황).

(9)는 윤여탁 등(2011) 2학년 2학기 『국어』 대단원 ‘4. 해석과 분석’의 소단원 중 적용학습의 내용이다. 이 단원의 본문은 ‘(1) 학업에 전념하라’는 읽기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 중 ‘학습활동’의 내용으로 (9)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상황 맥락’에 관한 내용은 이 교과서의 본문에는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같은 페이지의 하단에 ‘지식 검색’이라는 창을 설정하여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 4가지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된 학습 요소는 『생활 국어』에서 소단원 ‘(2) 맥락과 언어’를 설정하여 놓았다. 그렇다면 교과서의 머리말처럼 『국어』를 통해 원리나 지식을 먼저 학습하고 이를 『생활 국어』를 통해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⁴⁾. 그러므로 교사가 이런 종류의 교과서를 선정하였다면 전체적인 구성을 숙지하고 재구성하여 지도해야 한다.

4) 이 교과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

나. 비연계 교과서

비연계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 국어』의 대단원 목차가 다르며 내용면에서도 『국어』와 『생활 국어』의 단원 구성은 전혀 다른 교과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연계 교과서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비연계 교과서 목차-남미영 등(2011)

학기	국어	생활 국어
2-1	5. 우리말 표현 들여다보기 (1)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 (2) 상황 맥락에 따른 이해	5. 우리말 단어 들여다보기 (1) 단어의 짜임 (2) 단어 만들기
2-2	- 없음 -	3. 언어 속에 스며든 사회와 문화 (1) 남북한 언어의 모습 (2) 남북한 언어의 갈 길 5. 우리말의 풍경 (1) 전문어·은어·유행어 제대로 알기 (2) 전문어·은어·유행어 제대로 쓰기

〈표 3〉은 남미영 등(2011)의 목차이다. 〈표 3〉을 토대로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을 『국어』에서는 1학기 5단원에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 ‘상황 맥락에 따른 이해’를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성취 기준에 관한 내용은 『생활 국어』 교과서에 모두 편성하였다. 이와 같은 편제의 교과서는 다음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표 4〉 비연계 교과서 목차-이승원 등(2011)

학기	국어	생활 국어
2-1	- 없음 -	1. 울림이 있는 표현 (2) 여러 의미가 담긴 문장 4. 상황 속의 우리들 (1) 상황이 빛나는 의미
2-2	4. 분석의 힘 (1) 형태소로 쪼개기 (2) 단어의 짜임 살피기 (3) 쪼개서 설명하기	4. 창조의 힘 (1) 내가 만든 새말 (2) 끼리끼리 쓰는 말 5. 남북한 언어 잇기 (1) 남북한 언어 마주 보기 (2) 차이를 넘어 미래로

〈표 4〉는 이승원 등(2011)의 목차이다. 이 교과서도 『국어』와 『생활 국어』의 단원별 연계성

은 없다. 하지만 이 교과서의 머리말에서 제시된 『국어』와 『생활 국어』 1단원의 연계학습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0) 1단원 『국어』에서 배우는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연계하여 『생활 국어』에서는 자신이 상상한 세계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해 보자. 또,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을 통해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해 보자.

(10)은 『국어』와 『생활 국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국어』 1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파악하여 감상한다’와 ‘문학 작품이 지닌 가치를 인식한다’이다. 『생활 국어』 1단원의 학습 목표는 ‘상상한 세계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다’와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한다’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교과서는 연계성이 아주 낮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박경신 등(2011)의 2학년 2학기 5단원 목차이다.

〈표 5〉 비연계 교과서 목차-박경신 등(2011)

학기	국어	생활 국어
2-2	5. 소통을 꿈꾸다(읽기) (1) 수레 제도에 대하여 (2) 옛날의 책 읽기	5. 소통을 꿈꾸다(말하기, 문법) (1) 세대를 뛰어넘어 대화하기 (2) 남북한의 언어

〈표 5〉를 통해 볼 때 이 교과서는 대단원 제목은 일치하지만 소단원이 완전히 다름을 볼 수 있다. 특히 같은 대단원 제목을 달고 있지만 『국어』에서는 “읽기” 영역의 학습 내용을 선정하였고 『생활 국어』에서는 “말하기”와 “문법” 영역의 학습 내용을 선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머리말 내용을 싣고 있다.

- (11) 국어와 생활국어 교과서는 학습 목표와 내용 면에서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단원별로 생활 국어 교과서와 함께 학습하면 영역이나 내용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 단편적인 지식을 쌓거나 기능을 익히는 국어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국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국어 시간이 될 것이다(밑줄_필자).

(11)의 내용대로라면 국어에서 학습한 원리와 지식이 생활 국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므로 학습 목표와 내용 면에서 『국어』와 『생활 국어』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두 교과서의 내용이 전혀 다른 구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비연계 교과서를 선택한다면 이를 인지하고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2. 성취기준별 구현 양상

이 절에서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15종의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성취기준별로 교과서마다 단위 구성 방식과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가. ‘성취기준1’

‘성취기준1’은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인데 이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구현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6〉 ‘성취기준1’의 단위 구성⁵⁾

독립된 단원으로 구성	다른 영역과 함께 구성	
	1개 영역과 함께 구성	2개 영역과 함께 구성
이승원, 남미영, 조동길	듣기-왕문용, 감상육 말하기-박경신, 노미숙 읽기-윤여탁 쓰기-윤희원 문법-김종철, 이남호	듣기,말하기-방민호 말하기,읽기-이용남 문법,문법-권영민 쓰기,듣기-오세영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취기준1’이 독자적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서는 3종류였고 나머지 12종은 다른 영역과 함께 단원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 중 다른 영역 1개와 함께 2개의 영역이 하나의 대단원을 구성한 경우는 8종이었으며 다른 2개 영역과 함께 3개의 영역이 대단원을 구성한 경우는 4종이었다. ‘권영민’은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 3개가 하나의 단원을 구성한 특이한 사례이다.

이 성취기준이 ‘7차’의 국정 교과서에서는 9학년 1학기의 『생활 국어』 6단원에 설정되어 있었다. ‘7차’에서는 ‘남북한의 언어’라는 대단원에 두 개의 소단원(남북한 언어의 차이,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이 설정되어 있는데 ‘개정’ 교과서에서는 〈표 6〉처럼 단원이 편성되어 있다.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보여 주는 언어 자료로 북한의 사전이나 교과서, 신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15종의 실제 교과서에 구현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 (12) a.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글을 본문으로 제시하고 내용을 정리한 후 실제 활동을 제시

5) 이하 표에서는 대표저자만 표기한다.

- b. 실제 언어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고 활동을 통해 정리
- c. 실제 언어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여 차이를 느끼게 한 후 그와 관련되는 글을 제시

(12a)는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에 관한 전문가가 쓴 글을 본문으로 제시한 후 학습활동에서 본문을 정리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12b)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드러나는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경우이다. (12c)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드러나는 자료를 먼저 제시하여 이에 맞는 활동을 하게 한 다음 그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세 방식 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세 유형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2a) 방식의 교과서로는 윤희원 등(2011), 김종철 등(2011), 남미영 등(2011), 박경신 등(2011), 이용남 등(2011), 방민호 등(2011)인데 그 중 김종철 등(2011)의 체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3) a. 본문 글: 남한의 말, 북한의 글
- b. 학습활동
 - 내용학습
 - 목표학습
 - 적용학습

(13a)는 본문 글로 ‘남한의 말, 북한의 글(남기심)’을 학습한 후 학습활동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즉, 본문 글을 읽고 ‘언어의 이질화’가 어떤 현상인지 말해 보는 활동과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13b)에서는 본문에서 남한어와 다른 뜻으로 쓰는 북한어를 찾고 그 뜻을 쓰는 활동, 남한어에 해당하는 북한어를 찾아 연결하기,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말이 서로 달라진 원인 적기, 남한의 ‘국어 순화 운동’과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으로 다듬어진 말들을 비교하여 빈칸 채우기, 이 글에서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 찾아 정리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용학습에서는 북한의 축구 해설하는 글을 보고 북한의 축구 해설을 남한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기, 남한과 북한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축구 용어의 특징 말하기, 북한의 축구 중계를 온전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과서를 순서대로 수업한다면 기존의 독해 교육과 별반 차이가 없다. 즉, 주어진 본문을 읽고 ‘언어의 이질화’ 현상을 정의한 내용을 찾게 하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학생들 스스로 ‘언어의 이질화’ 현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질화’ 현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정답을 찾는 활동으로 사고를 굳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12b)의 방식으로 집필된 교과서로는 오세영 등(2011)과 노미숙 등(2011)을 들 수 있는데 오세영 등(2011)의 체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4) a. 북한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방송극 대본의 한 부분을 제시하고 대본을 참고하여 동영상 상을 시청하고 주어진 활동 해 보기
- 활동1: 대본을 참고하여 동영상 상을 시청한 후 활동(내용 정리, 낯선 말 찾기, 발음과 억양 면에서 북한말의 특징 찾기)
 - 활동2: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태와 언어 차이의 원인(우리말과 차이나는 말 밑줄 긋기, 내용 정리, 원인 정리하기)
 - 활동3: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해야 할 방법과 이유 정리하기)
- b.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 실린 글과 북한 동화를 읽고 주어진 활동 해 보기
- 활동1: 중심 내용 정리하기
 - 활동2: 북한 말의 특징 알기(말투 따라 읽기, 사전을 참고하여 남한말로 바꾸기, 남북한이 함께 쓸 수 있는 말 정리하기)

(14)는 ‘(3) 남북한의 말과 글’ 소단원이다. (14)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교과서는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동영상을 시청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 남한말과 북한말의 차이점을 찾도록 한 다음 남북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태와 원인을 찾아보게 한다. 그리고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이런 방식은 ‘생활 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그런데, (12b)와 같은 방식의 교과서 체제는 학생 스스로 차이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학생 스스로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아직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어떤 측면이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차이점은 느낄 것이지만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이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정리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12c)의 방식으로 이송원 등(2011)의 체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5) a. 북한 방송을 시청하고 북한의 발음, 억양, 어조를 남한어와 비교하기
- 뉴스방송, 만화 영어 동영상 제시 후 이에 대한 느낌을 적고 비교하여 말하기
 - 북한어의 발음, 억양, 어조와 그에 대한 설명을 짚짓기 활동
 - 남한어와 북한어의 발음, 억양, 어조의 차이점 설명하는 글 제시

- b. 북한 교과서에 실린 글 읽고 남북한 언어 비교하기
 - ‘곰동산과 토끼동산’ 글 제시
 - 활동(유사점 찾기, 생소하게 느껴지는 말이나 맞춤법이 다른 북한어를 남한어로 바꾸기)
 - 제시한 ‘곰동산과 토끼동산’에서 어휘의 차이에 대한 설명하는 글 제시
- c. 남북한의 외래어 수용 방식을 비교해 보고 그 특징 정리하기
 - 북한과 남한의 외래어 어휘 비교 소개
 - 남한과 북한의 외래어 수용 방식 비교표(활동)
 -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를 북한에서는 어떻게 수용하는지 조사 발표하기(활동)
 - 남북한의 외래어 수용 방식의 특징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 말하기(활동)
 - 북한의 외래어 수용 방식을 남한과 비교하여 정리하기
- d. 북한이탈주민과의 라디오 인터뷰를 보고, 남북한 언어 차이의 실태 알아보기
 - 인터뷰 자료
 - 내용 정리(활동)
 - 남북한의 언어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 적어보기
 - 정리하는 설명 글 제시

우리 민족은 지역마다 방언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언어 차이가 더욱 심해졌다. 그런 남북한 언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남북한 언어 차이의 실태를 알아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15a)를 제시한다. (15a)에서 세 가지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북한어의 발음, 억양, 어조가 남한어와 다름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런 후 남한어와 북한어의 발음, 억양, 어조의 차이에 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중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시한 것이다. (15)는 (13)과 제시하는 방식이 거꾸로라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는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구현된 양상을 비교해 보았다. 이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구현된 모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었지만 중학생들의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한다면⁶⁾ 단원 구성 방식은 (12c)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만일 (12a)와 같은 체제로 만들어진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활동을 먼저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고민을 하고 활동을 하게 한 다음 이에 관한 본문 글을 제시하고 학습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2b)와 같은 체제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선택할 경우에는 교사가 이론적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을 체계적으로 많이 제시해야 한다.

6) 이는 중학생들의 수준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면에서도 2007 개정에서는 탐구 학습의 절차를 명시(임지룡, 2010, p. 271)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구체화된 방식은 (13-15)처럼 조금씩 다르지만 15종의 교과서에 구현된 내용의 거의 비슷하다. 이 성취기준은 ‘단순한 어휘나 문장의 차이’보다는 이질화 양상을 깨닫게 하여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 199). 그러므로 교과서 편찬 방향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15종의 교과서 모두 ‘어휘나 발음, 문장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아쉽다.

나. ‘성취기준2’

‘성취기준2’는 ‘여러 종류의 어휘를 비교하고 그 사용 양상을 설명한다’로 이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어, 유행어, 은어 등이 들어 있는 언어 자료로 학술 서적(전문어), 텔레비전의 코미디 프로그램(유행어), 상인이나 학습자의 언어(은어) 사용 방식이 잘 드러난 담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구현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7〉 ‘성취기준2’의 단원 구성

독립된 단원으로 구성	다른 영역과 함께 구성		
	1개 영역과 함께 구성	2개 영역과 함께 구성	3개 영역과 함께 구성
남미영	듣기-박경신 읽기-권영민 문법-윤희원, 방민호, 이용남, 김종철, 이승원, 조동길, 김상욱, 노미숙	읽기, 문법-왕문용 말하기, 문학-윤여탁 읽기, 쓰기-오세용	문법, 쓰기, 읽기-이남호

〈표 7〉에서 살펴보면 ‘성취기준2’가 독자적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서는 1종류였고 나머지 14종은 다른 영역과 함께 단원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 중 다른 영역 1개와 함께 2개 영역이 하나의 대단원을 구성한 경우는 10종이었는데 대부분은 ‘문법’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과 함께 하나의 소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또 다른 2개 영역과 함께 3개의 영역이 대단원을 구성한 경우는 3종이었으며 다른 3개 영역과 함께 4개의 영역이 단원을 구성한 경우는 1종이었는데 이 교과서는 하나의 단원에 ‘문법’ 영역 2개의 성취기준과 ‘쓰기’, ‘읽기’ 영역과 함께 하나의 단원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 성취기준이 실제 교과서에 구체화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6) a. 전문어, 은어, 유행어
b. 유행어, 은어, 비속어

이 성취기준의 내용이 실제 교과서에 구현된 내용요소로는 (16)처럼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

난다. 성취기준에 ‘여러 종류의 어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16a)처럼 ‘전문어, 은어, 유행어’만을 다루었으며 한 종류의 교과서에서만 (16b)처럼 ‘유행어, 은어’와 더불어 ‘비속어’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16a)처럼 나타나는 이유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요소의 예’가 이들만 제시(교육인적자원부, 2007, p. 53)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어휘’라는 성취기준을 고려한다면 이전의 교육과정에 나타났던 ‘전문어, 은어, 유행어’만 다룰 것이 아니라 어휘교육의 내용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 어휘교육의 내용요소

- a. 어휘사용능력: 기초어휘 · 2차어휘 · 관용어 등 어휘량 확장, 단어의 다의적 용법 확장, 어휘 사용의 정확성, 어휘 사용의 풍부성
- b. 어휘 지식: 어휘의 개념, 국어 어휘의 특징, 어휘의 의미관계·동의관계 · 반의관계 · 하의관계 · 부분전체관계, 어종-고유어 · 한자어 · 외래어 · 혼종어, 어휘의 지리적 변이-표준어와 방언, 어휘의 정치적 변이-남북한 어휘의 이질성, 어휘의 사회적 변이-은어 · 전문어 · 속어 · 비어 · 유행어 · 새말, 어휘의 계층적 위상-높임말과 예사말, 어휘의 변화
- c. 어휘 인식: 어휘 순화, 남북한 어휘의 동질성 회복, 어휘의 인간 · 사회 · 문화의 상관성, 국어 어휘의 어제 · 오늘 · 내일

(17)은 임지룡(2010, p. 270)에 제시된 어휘교육의 내용요소이다. ‘성취기준2’는 (17b)의 어휘의 사회적 변이와 관련된 것(밑줄_필자)으로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 새말’과 관련이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에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가 명시(교육인적자원부, 1999, p. 34)되어 있었지만 2007 개정에서는 교육과정에 ‘여러 종류의 어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속어, 비어, 새말’과 관련된 것이 언급되어야 마땅하다. ‘새말’은 ‘은어, 전문어, 유행어’와 동일 선상에서 다루기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비어, 속어’는 동일 선상에서 다룰 수 있고 이를 고려하여 교과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후 적용의 단계에서 ‘새말’을 통해 이 개념들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차’에서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속어, 비어’만 특별히 빠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여러 종류의 어휘’라고 한다면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다루는 내용이 좁아지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다음은 같은 학년의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4)이다.

(18) 목적, 독자, 매체가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

[내용 요소의 예] 속어 · 비어 · 성차별적 언어 사용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 쓰기

(18)에서 보는 것처럼 ‘속어, 비어’와 관련하여 쓰기 영역에도 제시되어 있다. (17)에서 살펴본 어휘교육의 내용요소와 ‘쓰기’ 영역의 ‘내용 요소의 예’에도 ‘속어, 비어’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편찬할 때 이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단원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일선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교육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들을 연계하여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성취기준이 교과서에서 ‘말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관점에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말과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다음 본문 글을 제시한 후 학습활동을 하도록 구성하거나 활동 위주로 전문어, 유행어, 은어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식으로 교과서를 구성하였다. 활동 위주의 교과서는 우리 주변에서 유행어와 신조어들이 많이 사용된다는 제시문을 통해 유행어나 신조어, 은어가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을 점령하고 있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찾도록 하는 활동과 함께 이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은어나 유행어를 더 찾아보게 하고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검토해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문법영역에 ‘(1)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가 설정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이 단원을 제시하는 방법은 귀납적인 접근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활동을 먼저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고민을 하고 활동을 하게 한 다음 본문과 이에 따르는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성취기준3’

‘성취기준3’은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로 이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국어 단어 형성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글이나 단어의 짜임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단어들, 신문이나 방송 기사, 광고 등에서 새롭게 만든 단어들을 언어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구현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8〉 ‘성취기준3’의 단원 구성

독립된 단원으로 구성	다른 영역과 함께 구성	
	1개 영역과 함께 구성	2개 영역과 함께 구성
박경신, 김종철, 남미영	쓰기-이승원 문법-윤희원, 방민호, 이용남, 조동길, 이남호, 노미숙, 김상욱	읽기, 문법-왕문용 말하기, 문학-윤여탁 읽기, 쓰기-오세영 문법, 문법-권영민

〈표 8〉에서 살펴보면 ‘성취기준3’이 독자적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서는 3종류였고 나머지 12종은 다른 영역과 함께 단원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 중 다른 영역 1개와 함께 2개 영역

이 하나의 대단원을 구성한 경우는 8종이었으며 다른 2개 영역과 함께 3개의 영역이 대단원을 구성한 경우는 4종이었다. ‘권영민’에서는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 3개를 하나의 단원을 구성한 특이한 사례이다. ‘성취기준3’은 앞의 ‘성취기준1, 2’와 달리 하나의 독립된 대단원 또는 ‘문법’ 영역과 함께 구성된 단원이 많았다. 이 성취기준이 실제 교과서에 구현된 양상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 (19) a. 단어의 조각, 형태소
- b. 어절과 단어, 형태소
- c. 단어의 짜임: 형태소, 단어, 어근과 접사

- (20) a. 단어 만들기
- b. 단어의 짜임
- c. 단어의 짜임: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19-20)에 나타나는 것처럼 교과서에서 단어의 일부분인 ‘형태소’를 소단원에서 먼저 다루고 이를 토대로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를 다음 소단원에서 다루었다. (19a)에서는 단어의 조각으로 형태소를, (19b)에서는 형태소를 설명하기 위해 어절과 단어를 비교 대상으로 가져왔고, (19c)에서는 형태소, 단어와 더불어 어근과 접사 개념을 미리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형태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한 대상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동소이하다. (19)에서는 ‘형태소’와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단어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여 단어의 짜임을 탐구함으로써 국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러 종류의 단어들을 언어 자료로 하여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 단어의 짜임 등을 탐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5종의 교과서에서 이 성취기준의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 또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즉, 이론적인 배경에 중점을 두는 방법과 실질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7차’의 국정 교과서에 비해 구체적인 예문을 직접 제시한 후 학생들에게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이 활동하기에 훨씬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7차’의 국정 교과서에서는 ‘생활 속에서 흔히 쓰는 합성어를 찾아, 어근과 어근으로 나누어 보자’와 같이 막연하게 제시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7차’ 국정 교과서에 비해 의미론적인 기준보다는 형태론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된 것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형태소나 단어를 나누는 분류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성취기준4’

‘성취기준4’는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한다’로 중의적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을 대상으로 한다. ‘7차’의 국정 교과서에서는 9학년 2학기 ‘2. 문장의 구조’란 대단원 속에 ‘문장의 구조, 문장의 주성분, 문장의 부속성분과 독립성분’과 더불어 하나의 소단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 교과서에서는 ‘문장에 쓰인 호응 관계’는 6학년에, ‘문장의 구성 성분 분석’은 4학년의 성취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구현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9〉 ‘성취기준4’의 단원 구성

다른 영역과 함께 구성		
1개 영역과 함께 구성	2개 영역과 함께 구성	3개 영역과 함께 구성
쓰기-왕문용, 박경신, 이용남, 김상욱, 이승원 문학-김종철, 윤여탁, 오세영 문법-남미영, 조동길	말하기, 듣기-방민호 읽기, 쓰기-윤희원, 노미숙 문법, 문법-권영민	쓰기, 읽기, 문법-이남호

〈표 9〉에서처럼 ‘성취기준4’가 독자적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서는 없었고 15종의 교과서 모두 다른 영역과 함께 단원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 중 다른 영역 1개와 함께 2개 영역이 하나의 대단원을 구성한 경우는 10종이었으며 다른 2개 영역과 함께 3개의 영역이 대단원을 구성한 경우는 4종이었다. 다른 영역 2개와 ‘문법’ 1영역과 4개의 영역이 한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서가 1종이었다. ‘성취기준4’는 ‘문장의 의미’와 관련이 있어서 ‘쓰기’나 ‘문학’ 영역과 연관을 지어 동일한 단원에 편성한 교과서가 많았다. 실제 교과서에서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다음과 같은 체제를 취하고 있다.

- (21) a.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림 보고 무엇인지 쓰기
b. 본문
c. 학습활동

(21a)처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림(루빈의 컵)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대상이 여러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생각하게 한 다음 본문으로 연결한다. (21b)의 본문을 학습한 후 (21c)의 학습활동으로 연결시킨다. 학습활동에서는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 의미 찾아 쓰기, 중의성이 생기는 원인 찾기,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을 정확한 표현으로 고쳐 써야 하는 이유 말하기 등을 점검한다.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 구별하기, 중의적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고 장·단점 말하기, 광고 문구의 중의적 표현을 찾고 사용한 이유 생각해 보기, 모호한 표현

들의 뜻을 생각해 보고 정확한 표현으로 고치기 활동을 하고 중의적 표현의 효과와 광고지의 모호한 표현을 정확한 표현으로 고치는 활동을 제시한다.

하지만 윤희원 등(2011)에서는 이 성취기준을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하지는 않고 ‘중의적 표현, 모호한 표현’과 관련되는 내용을 읽기 자료로 간단히 제시하고 ‘주장하는 글’의 전체 단원 중에서 문제를 통해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쓰기를 제시하고 있다. 생활국어에서는 하나의 활동(활동 3)을 통해 이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성취기준을 다른 영역과 함께 단원을 구성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 영역의 성취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의 분량으로는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성취기준4’는 ‘개정’에서는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으로 제시되었으나 ‘7차’에서는 ‘문장의 구조로 말미암아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현상’으로 제시되었다. 두 성취기준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교과서로 구현된 것에는 차이가 크게 난다. 즉, ‘7차’ 국정 교과서에서는 ‘중의적 표현’만을 다루고 있는 반면 ‘개정’ 교과서에서는 ‘중의적 표현’과 ‘모호한 표현’까지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성취기준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

마. ‘성취기준5’

‘성취기준5’는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함을 이해한다’로 담화나 글의 의미를 해석할 때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 맥락의 개념이나 구성 요소, 상황 맥락이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지도하되,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어의 의미는 발화 문맥을 배경으로 적절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취기준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도 중요하다. 교과서에도 대부분 다른 영역과 함께 하나의 대단원을 이루고 있는데 이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구현된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성취기준5’의 단원 구성

다른 영역과 함께 구성	
1개 영역과 함께 구성	2개 영역과 함께 구성
말하기-김종철, 이승원, 김상욱 읽기-오세영 문법-남미영, 조동길 문학-박경신	듣기, 말하기-이남호 읽기, 쓰기-윤여탁 읽기, 문학-방민호, 권영민, 노미숙 말하기, 읽기-왕문용 쓰기, 읽기-윤희원, 이용남

〈표 10〉에서 보듯이 ‘성취기준5’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독자적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서는 없고 15종의 교과서 모두 다른 영역과 함께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그 중 다른 영역 1개와 함께 2개 영역이 하나의 대단원을 구성한 경우는 7종이었으며 다른 2개 영역과 함께 3개의 영역이 대단원을 구성한 경우는 8종이었다. 이 성취기준은 ‘대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련된다는 것을 지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성취기준이 실제 교과서로 구현된 양상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 (22) a. 읽기전에
 - b. 본문 글: 상황 맥락에 따른 이해
 - c. 학습활동
 - d. 스스로 학습(활동1, 활동2, 활동3)
- (23) a. 준비활동: 똑같이 말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다른 이유 생각해 보기
 - b. 본문 글: 이럴 때는 이런 뜻
 - c. 학습활동: 내용학습, 목표학습, 적용학습
- (24) a. 활동1: 만화를 보고 대화나 글에서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찾기
 - b. 활동2: 이야기를 읽고 상황 맥락에 따라 말이나 글의 의미 차이 찾기
 - c. 활동3: 글을 읽고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 파악하기
 - d. 활동4: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22)는 남미영 등(2011), (23)은 김종철 등(2011), (24)는 박경신 등(2011)의 단원 구성이다. (22)에서는 (22b)처럼 본문 글을 먼저 제시하였다. 본문에서 ‘상황 맥락의 개념, 구성요소, 상황 맥락이 대화와 글의 의미 해석에 미치는 영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 다음 (22c)와 같이 학습활동에서 본문 내용을 확인하고 몇 가지의 상황을 설정한 후 활동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답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d)처럼 실제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활동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교과서에서는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3’과 하나의 대단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 소단원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 두 소단원 간의 연계성은 전혀 없다.

(23)에서도 그림을 통해 같은 말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다른 이유 생각해 보기를 통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 후 (23b)에서처럼 본문 글로 ‘이럴 때는 이런 뜻’을 제시한다. 그 후 (23c)의 학습활동을 제시한다. 내용학습에서는 말의 뜻을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의사소통할 때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등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목표학습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장면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학습하게 하고 같은 말이라도 사람마다 해석한 의미가 달라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적용학습은 상황 맥락에 따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활동이다. ‘적용학습’이 (22)의 ‘스스로 학습’과 같은 적용 단계라 본다면 (22)와 별반 차이가 없다.

(24)는 (22-23)과는 달리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담화나 글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만화를 보고 대화나 글에서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는 활동, 이야기를 읽고 상황 맥락에 따라 말이나 글의 의미 차이를 찾는 활동, 글을 읽고 국어 생활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 파악하기,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22-24)처럼 이 성취기준을 하나의 소단원으로 편성한 교과서가 많다. 그러나 이 성취기준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관련성이 크다. 그러므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영역과 관련하여 ‘상황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타 영역과 함께 단원을 편성하되 독립된 단원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영역의 성취기준과 함께 묶어서 단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5) a. 듣기-4: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진행자의 말하기 특성과 효과를 평가한다.
- b. 말하기-3: 말의 내용이나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웃어른과 대화한다.
- c. 문학-3: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성취기준5’를 구체화하기 위한 단원을 만들면서 (25)의 ‘듣기, 말하기,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을 함께 구체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물론 다른 성취기준도 영역을 통합하여 관련시킬 수 있는 영역과 함께 교과서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마무리

이 연구는 2007년에 개정·고시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이 8학년 교과서로 구현된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2011학년도부터 사용된 15종의 8학년 『국어』와 『생활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7차’와 ‘2007 개정’ 교육과정 ‘문법’ 영역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학습의 양을 줄인 교육과정이라고 했지만 ‘성취기준’에 사용된 용어나 개념으로 보아 포괄적이며,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상위 학년에 있었던 내용이 유입되어 수준 면에서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취기준이 교과서로 구현된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5개의 성취기준 중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성취기준'의 내용은 비슷하였지만 교과서로 실현된 내용에서는 달라진 것도 있었지만, 반대로 교육과정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을 요구하였지만 이전의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다른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있어 아쉬웠다.

셋째, 교육과정이 구체화된 교과서 방식에 따라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교과서를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완전연계 교과서를 선택할 경우에는 '국어'와 '생활 국어'를 순차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분연계 교과서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비연계 교과서의 경우에는 두 교과서의 단원 구성이 전혀 별개의 책이라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각 교과서가 학생 활동이 중심을 이루는 경우, 이론적인 전문가의 글을 먼저 제시하고 학생 활동을 제시하는 경우, 앞의 두 경우를 혼합한 경우 등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으므로 교사들이 교과서를 채택하여 지도할 때에는 교과서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넷째, 교과서 편찬시 하나의 영역을 하나의 소단원이나 대단원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 영역과 함께 묶을 수 있는 성취기준은 독립된 단원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영역의 성취기준과 함께 묶어서 단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국어』와 『생활 국어』 교과서의 연계성을 잘 파악하여 교과서를 선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용을 지도할 때에도 선정한 교과서의 체제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교사 스스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교과서의 내용이 교과서에 잘 구체화되어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논문〉

- 교육인적자원부(1999).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 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5】**.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억조(2010). 개정 교육과정 ‘문법’영역의 7학년 교과서 구현 양상 연구. **국제언어문학**, 제21호, 49-87.
- 송현정(2005). 국어 교과서 김정제에 관한 실태 분석과 도입의 방향 탐색. **이중언어학**, 28, 161-183.
- 신호철(2009). 국어교육에서 연계성의 개념과 양상-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V81, 183-211.
- 윤여탁(2008). 국어교육의 본질과 교과서. **선청어문**, V36, 531-552.
- 이동혁(2008). 문장의 의미 해석을 위한 의미영역의 역할. **한국어 의미학**, 제26집, 183-209.
- 이문규(2008). 문법 교육의 성격과 학교 문법의 내용. **언어과학연구**, V46, 149-170.
- 이용숙(2005). 제 7 차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와 미국 교과서 내용구성 체계 비교 분석. **교육과정 연구**, 187-220.
- 이창수(2007). 국어과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반영되는 유형에 따른 분석 연구(2)-제7차 교육과정 5학년을 중심으로. **배달말**, V41, 257-298.
- 임지룡(2006).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 의미학**, 제21집, 1-29.
- 임지룡(2010). 국어 어휘교육의 과제와 방향. **한국어 의미학**, 제33집, 259-296.
- 정혜승(2002). 국어과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반영되는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제15집, 229-258.
- 정혜승(2004). 국어 교과서 평가 방안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1, 433-476.
- 정혜승(2005). 미국의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 **독서연구**, 제14호, 335-371.
- 정혜승(2006). 좋은 국어 교과서의 요건과 단위 구성의 방향. **어문연구**, 제132호, 379-400.
- 최미숙 외(2008). **국어교육의 이해**. (주)사회평론
- 최웅환(2009). 문법 교육에서의 교수적 변환론. **국어교육연구**, 제45집, 321-346.
- 함수곤(2000).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한교과서.

〈교과서〉

- 권영민 등(2011). **국어 2-1**. (주)새롬교육
- 권영민 등(2011). **국어 2-2**. (주)새롬교육

- 권영민 등(2011). **생활 국어 2-1**. (주)새롬교육
권영민 등(2011). **생활 국어 2-2**. (주)새롬교육
김상옥 등(2011). **국어 2-1**. (주)창비
김상옥 등(2011). **국어 2-2**. (주)창비
김상옥 등(2011). **생활 국어 2-1**. (주)창비
김상옥 등(2011). **생활 국어 2-2**. (주)창비
김종철 등(2011). **국어 2-1**. (주)도서출판 디딤돌
김종철 등(2011). **국어 2-2**. (주)도서출판 디딤돌
김종철 등(2011). **생활 국어 2-1**. (주)도서출판 디딤돌
김종철 등(2011). **생활 국어 2-2**. (주)도서출판 디딤돌
남미영 등(2011). **국어 2-1**. (주)교학사
남미영 등(2011). **국어 2-2**. (주)교학사
남미영 등(2011). **생활 국어 2-1**. (주)교학사
남미영 등(2011). **생활 국어 2-2**. (주)교학사
노미숙 등(2011). **국어 2-1**. (주)천재교육
노미숙 등(2011). **국어 2-2**. (주)천재교육
노미숙 등(2011). **생활 국어 2-1**. (주)천재교육
노미숙 등(2011). **생활 국어 2-2**. (주)천재교육
박경신 등(2011). **국어 2-1**. (주)대교
박경신 등(2011). **국어 2-2**. (주)대교
박경신 등(2011). **생활 국어 2-1**. (주)대교
박경신 등(2011). **생활 국어 2-2**. (주)대교
방민호 등(2011). **국어 2-1**. (주)지학사
방민호 등(2011). **국어 2-2**. (주)지학사
방민호 등(2011). **생활 국어 2-1**. (주)지학사
방민호 등(2011). **생활 국어 2-2**. (주)지학사
오세영 등(2011). **국어 2-1**. (주)해냄에듀
오세영 등(2011). **국어 2-2**. (주)해냄에듀
오세영 등(2011). **생활 국어 2-1**. (주)해냄에듀
오세영 등(2011). **생활 국어 2-1**. (주)해냄에듀
왕문용 등(2011). **국어 2-1**. (주)대교
왕문용 등(2011). **국어 2-2**. (주)대교
왕문용 등(2011). **생활 국어 2-1**. (주)대교

왕문용 등(2011). **생활 국어 2-2**. (주)대교
 윤여탁 등(2011). **국어 2-1**. (주)미래엔컬처그룹
 윤여탁 등(2011). **국어 2-2**. (주)미래엔컬처그룹
 윤여탁 등(2011). **생활 국어 2-1**. (주)미래엔컬처그룹
 윤여탁 등(2011). **생활 국어 2-2**. (주)미래엔컬처그룹
 윤희원 등(2011). **국어 2-1**. (주)금성출판사
 윤희원 등(2011). **국어 2-2**. (주)금성출판사
 윤희원 등(2011). **생활 국어 2-1**. (주)금성출판사
 윤희원 등(2011). **생활 국어 2-2**. (주)금성출판사
 이남호 등(2011). **국어 2-1**. (주)미래엔컬처그룹
 이남호 등(2011). **국어 2-2**. (주)미래엔컬처그룹
 이남호 등(2011). **생활 국어 2-1**. (주)미래엔컬처그룹
 이남호 등(2011). **생활 국어 2-2**. (주)미래엔컬처그룹
 이송원 등(2011). **국어 2-1**. (주)좋은책신사고
 이송원 등(2011). **국어 2-2**. (주)좋은책신사고
 이송원 등(2011). **생활 국어 2-1**. (주)좋은책신사고
 이송원 등(2011). **생활 국어 2-2**. (주)좋은책신사고
 이용남 등(2011). **국어 2-1**. (주)지학사
 이용남 등(2011). **국어 2-2**. (주)지학사
 이용남 등(2011). **생활 국어 2-1**. (주)지학사
 이용남 등(2011). **생활 국어 2-2**. (주)지학사
 조동길 등(2011). **국어 2-1**. (주)비상교육
 조동길 등(2011). **국어 2-2**. (주)비상교육
 조동길 등(2011). **생활 국어 2-1**. (주)비상교육
 조동길 등(2011). **생활 국어 2-2**. (주)비상교육

· 논문접수 : 2011-09-01/ 수정본접수 : 2011-10-10/ 게재승인 : 2011-10-25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 of 8th grade Korean Textbook published by the Korean education curriculum 2007 revised version

Eok-Jo, Kim(Teacher, Hong-Je Middle School)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about the 8th grade Korean textbook which was published by the 7th Korean education curriculum(revised version) in 2007. The textbook is a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that embodies the intention and content of the curriculum. It takes an important role in the domain of education. We have used a kind of Korean textbook provided government-published textbook, the 7th Korean education curriculum, since 2000. But we will select a new kind of textbook from 23 kinds of Korean textbooks last year. And, we will select a new kind of textbook from 15 kinds of Korean textbooks this year. So I studied the grammar domain that is a part of Korean education curriculum of 2007 revised version in Chapter II.

Second, in chapter III, I am researching about aspects of the authorized textbook that has expressed five achievement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Korean education curriculum of 2007 revised version. As a result, I found it was very different in every textbook. So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select very carefully the textbook for teaching students. And that, it is more important that each teacher study the 7th Korean education curriculum(revised version) in 2007.

Key Words : Korean Textbook, The Korean education curriculum 2007 revised version, grammar domain, 8th grade, achievement standards, government-published textbook, authorized textbook